

2025년 마지막 학기를 다니며 이제는 그냥 “졸업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다. 학기 초 첫 과제로 내 인생의 비전 선언서를 써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미래를 글로 정리해 보라는 요구 같아서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래도 지난 몇 년 동안 쌓아 온 경험이 있고, 대학원과 연구소라는 비교적 뚜렷한 방향이 생긴 만큼, 이번 기회에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내 인생의 꿈과 목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꿈은 인공지능, 그중에서도 컴퓨터비전 분야 연구자로 성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DGIST, UNIST, GIST 같은 과학기술원 계열의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비전 트랜스포머(Vision Transformer, ViT)와 같은 최신 모델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후에는 국가 연구소나 기업 부설 연구소에 들어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목표다. 이들 학교의 인공지능 대학원들은 세계 수준의 AI 교육과 연구를 통해 실무 역량을 갖춘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고, 컴퓨터비전과 딥러닝 관련 연구실들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나도 한 명의 연구자로 성장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왜 하필 컴퓨터비전이고, 그중에서도 비전 트랜스포머인가를 돌아보면, “이미지라는 비정형 데이터를 모델이 어떻게 이해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에게는 꽤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이미지를 일정 크기의 패치로 잘라서 일종의 토큰처럼 다루고, 자연어 처리에서 성공한 트랜스포머 구조를 이미지 인식에 그대로 적용해서 좋은 성능을 보인 모델이다. 단순히 기존 CNN 구조를 조금 수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지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꾼 아이디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나도 이런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데서 멍추지 않고, 실제 데이터셋에 적용해 보고, 개선점을 고민하며 논문이나 코드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리고 있는 인생의 큰 그림은 대략 이런 흐름이다.

우선, 학부에서 배운 기본기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원 대학원 석사 과정에 진학한다. 그 안에서 컴퓨터비전/딥러닝 연구실에 들어가 비전 트랜스포머를 포함한 시각 인식 모델들을 다루고, 실제 논문을 읽고 구현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후에는 연구소에 들어가 카메라·센서·의료영상·자율주행 등 현실 세계에서 쏟아지는 시각 데이터를 다루면서, 사람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단순히 “AI가 잘 맞는 것 같다” 수준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해 온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최종적인 모습이다.

2. 나의 1년 목표 (1년 동안 이루고자 한 것)

이렇게 큰 꿈만 가지고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난 1년 동안 꽤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웠고, 그 목표를 기준으로 내 시간을 채워 왔다. 가장 먼저 설정했던 건 자격증이었다. 정보처리기사와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 두 개를 1년 안에 모두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고, 실제로 계획대로 준비해서 두 자격증을 모두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전공 이론을 다시 처음부터 복습하게 되었고, 데이터 관련 기본 개념들도 정리할 수 있어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는 말에 조금은 더 책임을 질 수 있게 된 느낌이 들었다.

두 번째 축은 “연구”와 “진로 설계”였다. 단순히 대학원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타 대학교 교수님들께 직접 메일을 보내고, 연구 주제와 랩 분위기에 대해 질문하면서 내 진로를 조금씩 구체화해 나갔다. DGIST, UNIST, GIST처럼 인공지능 대학원이 잘 갖춰진 학교들의 연구실 정보를 찾아보고, 어떤 곳은 사람 행동·자세 인식, 어떤 곳은 3D 비전과 로보틱스, 또 어떤 곳은 의료영상이나 멀티모달 인식처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비전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교수님들과의 컨택을 통해, 내가 앞으로 집중하고 싶은 분야와 그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조금씩 감이 잡혀 가고 있다.

세 번째는 “현장에서의 경험”과 “사람 사이에서의 성장”이다. 나는 과학생회 과대표를 맡으면서, 단순히 내 할 일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학과 전체의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 해 동안 수행하고 있다. 행사 하나를 준비해도 예산, 인원, 일정, 교수님과의 소통까지 신경 쓸 일이 많고, 의견이 부딪힐 때도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리더십과 조율 능력이 자연스럽게 단련되었다고 느낀다. 동시에 학부연구생으로 참여하면서 실제 연구실에서 대학원생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고, 코드 리뷰를 받고, 실험 로그를 정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비전 트랜스포머 관련 논문을 따라 구현해 보고, 간단한 실험이라도 직접 돌려 보는 경험을 통해 “논문에서 본 문장”을 “내가 만져 본 코드”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중이다.

대외활동 측면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OSS 활동중 Pytorch 문서화 작업에 관한 오픈소스 활동에 참여해 본 것이 큰 경험이었다. 깃허브 이슈를 읽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분석해 보고, 작은 버그를 고쳐서 PR을 보내는 과정을 통해 “전 세계 개발자들이 코드를 통해 소통한다”는 걸 몸으로 느꼈다. 이건 단순히 스펙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앞으로 연구자가 되었을 때도 오픈소스 생태계 안에서 논문과 코드를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KT 장학생으로 활동하면서, 장학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통해 다른 학교, 다른 전공의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이 활동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내가 왜 이 분야를 선택했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계속해서 되물어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장학생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책임감 때문에, 한 해를 허투루 보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더 강해졌다.

정리하자면, 지난 1년 동안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크게 네 가지였다.
자격증과 높은 학점을 유지하며 전공 기초를 다시 다지는 것,
여러 교수님들과의 컨택과 학부연구생 경험을 통해 연구의 맛을 보는 것,
과대표와 대외활동을 통해 사람 사이에서 성장하는 것,
그리고 이런 모든 경험을 “과학기술원 대학원 석사 → 연구소 연구원”이라는 큰 꿈과 연결해 보는 것이다.

물론 아직 완성된 비전 선언서는 아니다.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공부해야 하고, 논문 한 편을 끝까지 책임지고 써 본 경험도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1년을 돌아보면, 적어도 내가 막연히 “AI가 뜨니까 나도 해 볼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느낀다. 앞으로의 1년 역시, 이번에 세운 비전을 기준으로 자격·연구·사람·경험을 꾸준히 채워 넣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한 걸음씩 쌓다 보면, 언젠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연구실의 한 자리에 실제로 앉아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